

'좋은 아버지' 20계명

대화소재 넓히고 공동경험 많이 가져야
노동 중요성 일깨우기·과잉보호 경계도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30, 40대의 평범한 아버지 2백여명으로 구성된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운영위원장 김동렬·40·성신석유 이사)은 9일 서울 동숭아트센터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관심과 실천 토론회를 갖고, '좋은 아버지 20계명'을 선정했다. 바람직한 자녀교육과 가정의 역할을 제시한 '좋은 아버지 20계명'은 집에서 그대로 실천해볼 만하다.

■ 대화의 소재를 많이 만들어라

자녀와 대화를 나눌 소재를 적극적으로 찾는다. 자녀 방의 벽지를 직접 발라주는 것도 대화의 소재를 찾는 좋은 방법이다.

■ 자녀에게 많은 결정권을 줘라

억압·강요가 아니라 자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실행에 옮기도록 하면 자녀의 자립심도 키우고, '멋진 민주가장'으로 인식된다.

■ 자녀의 공책을 살펴보자

하루 1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 그날 무엇을 배웠는지 공책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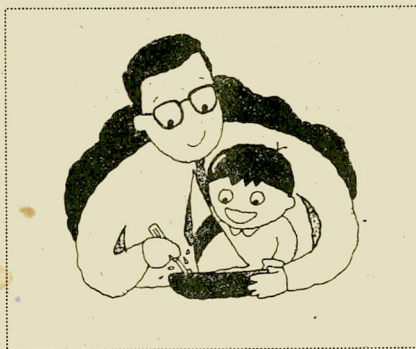
■ 자녀에게 편지를 써보자

간단한 메모형식이라도 아버지의 정이 듬뿍 담긴 구절은 자녀에게 따스하게 전달된다.

■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집에 있을 때 텔레비전만 보거나 낮잠만 자는 아버지 모습은 자녀교육상 좋지 않다. 자녀가 활활뿔기를 할 때 같이 만드는 아버

'좋은 아버지...모임' 토론 선정



지가 자녀를 감동시킨다.

■ 먹자판·놀자판 놀이문화를 지양하라

먹고 노는 것만을 중시하는 것보다는 주말을 이용해 역사·문화 유적지 등을 찾아 탐구·관찰하며 야외자연학습을 해본다.

■ 공동의 경험을 다양하게 축적하라

등산·문화행사 참석 등으로 자녀와 공동경험을 쌓는 것은 바로 대화의 시작이다.

■ 가족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가장이 되라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지 않도록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자녀에게 심어준다. 캠프·단체행사 등에 자주 참여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 자녀의 학교를 방문해보라

자녀가 하루의 절반을 보내는 학교를 아버지도 방문해 교육시설·교육환경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법을 제시한다.

■ 강하게 키워라

자녀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교육시키지 말고 인내·용기·모험심을 길러준다.

■ 근로의 중요성을 일깨워줘라

구두나 차를 닦게 해 일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과 일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한다.

■ 자녀 앞에서 정정당당한 위엄을 보여라
불필요한 권위주의를 내세우는 딱딱한 아버지가 되어서는 자녀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꾸중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 때로는 회초리도 가하라

무조건 '오냐'식으로 과잉보호하지 말고 맞아야 할 이유가 있을 때 과감하게 사랑의 때를 드는 아버지가 바람직하다.

■ 사소한 것을 기억하는 아버지가 되라

자녀의 친한 친구 이름, 현재 읽는 책 등 자녀 주변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 주 1회 아버지와 자녀 둘만의 특별한 스케줄을 가져라

점심이나 저녁을 함께 들고 나서 그동안 못나눈 대화를 나누거나 영화·그림감상 등을 하며 감정교류를 해도 좋다. 이런 일은 자녀가 성장한 뒤 잊지 못할 아버지와와의 추억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